삼성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

2026.07

Samsung
Fund

스튜어드십 코드 지지

당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지지하며, 아래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및 이행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본 이행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에 반영한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기준과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026년 7월 31일

삼 성 자 산 운 용
대표이사 김우석

Agenda

01 회사소개
0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03 수탁자 책임 원칙
04 이해상충 방지
05 투자기업에 대한 점검
06 ESG 체계 및 프로세스
07 주주활동
08 의결권 행사
09 전문인력 역량 강화

01 회사소개

회사명

(국문) 삼성자산운용(주)
(영문) Samsung Asset Management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

연혁

1998 — 1998. 09 삼성생명투신운용 설립

2002 — 2002. 10 국내 최초 ETF 상장

2007 — 2007. 11 홍콩 현지법인 설립

2010 — 2010. 04 삼성자산운용 사명 변경

2016 — 2016. 04 삼성 TDF 최초 출시

2017 — 2017. 01 삼성액티브자산운용/헤지자산운용 분사

2018 — 2018. 0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20 — 2020. 09 국내 최초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

2025 — 2025. 10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 7회연속 재선정

2026 — 2026. 06 총 관리자산 566조
* Kodex ETF 200조

주요 사업

ETF 사업 (Exchange-Traded Funds)

ETF 상품 개발·운용과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국내에서 축적한 운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국, 홍콩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ETF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주식, 채권, 멀티에셋, LDI 등 폭넓은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리서치와 운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의 자산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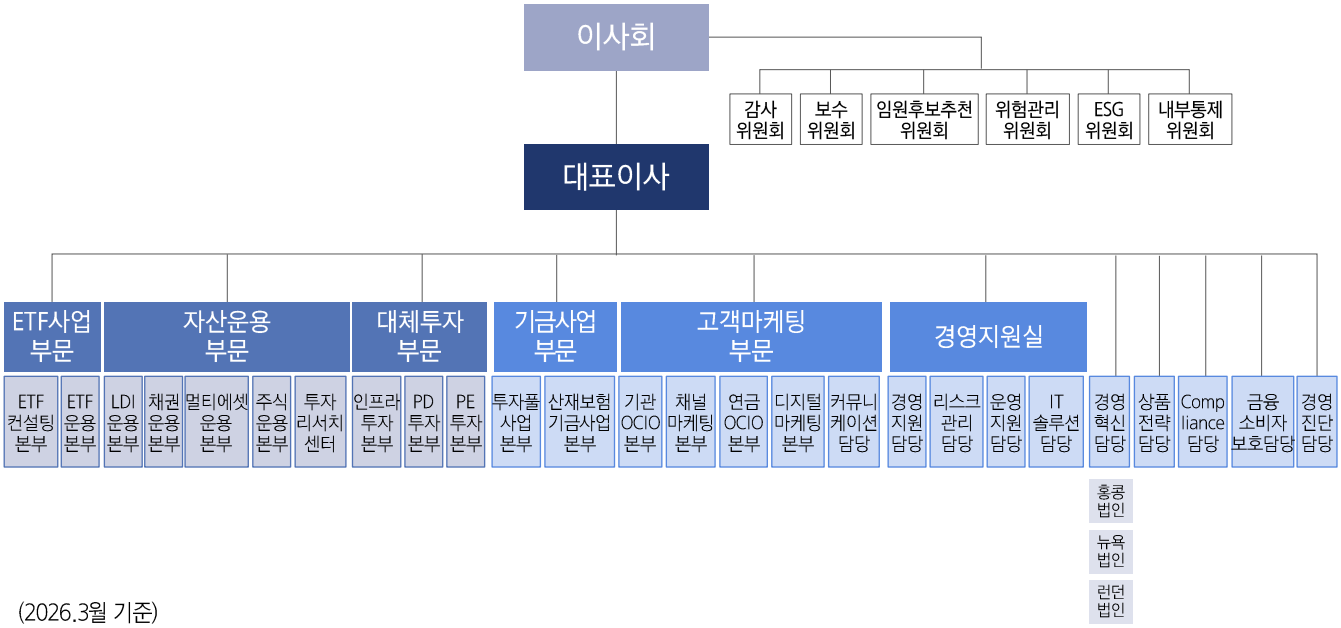
인프라, 사모대출, Private Equity 등 대체투자 전 영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장기 성과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공적 기금의 제도적 목적과 자금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축적된 OCIO 운용 경험과 체계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통해 공공자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5부문 / 1실 / 15본부 / 1센터 / 10담당 / 3법인으로 구성



(2026.3월 기준)

0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삼성자산운용의 ESG 투자 철학

삼성자산운용은 ESG 분석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의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 운용 프로세스에 ESG를 효율적으로 통합시켜서 더욱 강화된 운용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별화된 운용

장기적 관점에서 ESG의 위험과 기회 요인 식별
비재무적 요인인 ESG 고려하여 신의성실 의무 충실

팀 어프로치

ESG 통합으로 선진 투자 운용 프로세스 구축

가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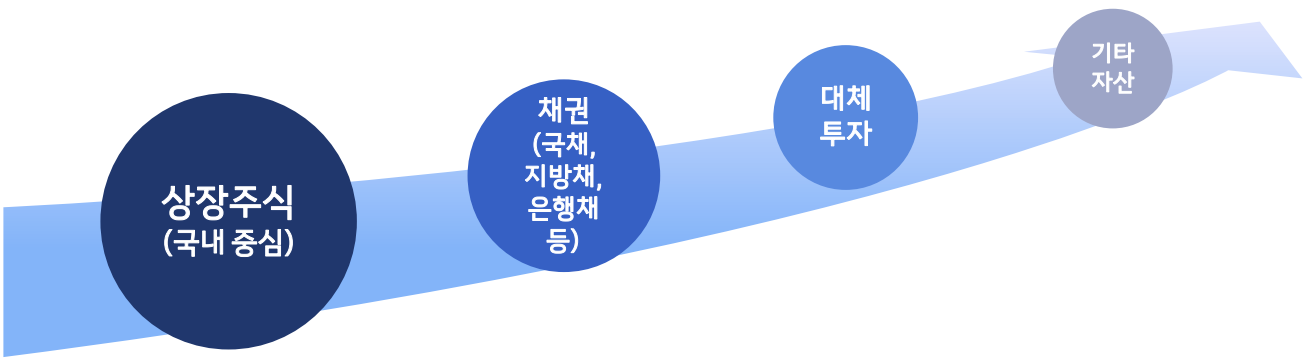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투자로 장기적인 가치 창출

리스크 관리

전방위적인 ESG 리스크 관리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산군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국내 상장 주식/채권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변경과 내부 인적 자원 확보,역량 강화 등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산군을 점진적 확대함으로써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연혁

삼성자산운용은 ESG 분석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의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 운용 프로세스에 ESG를 효율적으로 통합시켜서 더욱 더 강화된 운용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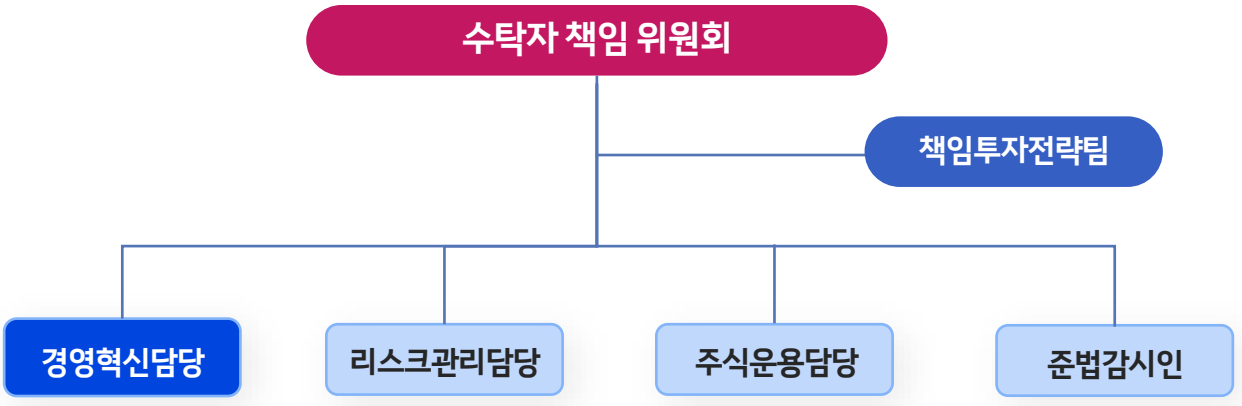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은 '26.2월 스튜어드십 코드 전문성 강화와 수탁자책임 이행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의결권, 정책방향 등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경영혁신담당(상무)을 위원장으로 전사 리스크관리담당, 주식운용담당, 준법감시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정책 등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책임투자전략팀

책임투자전략팀은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전사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을 실행중입니다. 향후 ESG 투자 및 책임투자 전략 고도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명	직급(직책)	연락처	비 고 (전문성)
책임자	양재명	경영혁신담당	상무	02-3774-7892 just.yang@samsung.com	수탁자책임위원장
담당자	이병은	책임투자전략팀	수석 (팀장)	02-3774-7831 byungeun80.lee@samsung.com	주주권행사 경력 3년 삼성생명 이사회 운영
담당자	정원정	책임투자전략팀	수석 (위원)	02-3774-7881 won.chung@samsung.com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경력 10년 스튜어드십팀장, ESG팀장
담당자	백승윤	책임투자전략팀	선임	02-3497-4124 samuel.baik@samsung.com	주주권행사 경력 4년

수탁자책임위원회 개최 현황 : '26년 상반기 중 총 11차례 회의 개최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6년 정기추종에서 총 21개사에 대해 의사 결정을 실시하여 ,전체 의결권 행사 기업(359개사)중 약 6%(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6%)를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의결 안건 : 26건, 보고 안건 : 2건

구 분	주요 내용
26-1	•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안 의결 (위원 정수 확대 등) •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결 • 26년 정기추종 의결권 행사 계획 보고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계획 보고
26-2	• 의결권 행사 (5개사)
26-3	• 의결권 행사 (2개사)
26-4	• 의결권 행사 (5개사)
26-5	• 의결권 행사 (4개사)
26-6	• 의결권 행사 (2개사)
26-7	• 의결권 행사 (2개사)
26-8	• 의결권 행사 (1개사)
26-9	•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 건 (법정 공시) 의결
26-10	• 주주서한 발송의 건 의결
26-11	• 의결권 행사 (임시주총 1개사)

※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결 주요 안건

- 전담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안건
- 위원중 1인 이상이 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안건
- 전담부서와 매니져간 이견이 큰 안건
- 보유지분 3% 이상 보유 대상 중 주요 안건

책임투자 AUM 현황

유 형		AUM (억) 25.12월말 전 체	25.12월말 책임투자	26. 6월말 전 체	26. 6월말 책임투자	비 고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
상장주식	국 내	463,579	26,283	1,044,935	39,904	적 용
	해 외	259,598	18,356	384,392	21,010	미적용
채 권	국채, 지방채, 은행채, 특수채, 회사채 등	2,015,843	119,310	2,071,558	122,589	국내 채권에 한해 적용
대체투자	부동산 및 인프라	96,939	18,680	105,440	19,154	미적용
	사 모	97,610	-	109,741	-	미적용
	벤처투자	902	-	1,070	-	미적용
기 타		1,435,072	-	1,874,680	-	미적용
총 계		4,369,542	182,629	5,591,815	202,657	

※ 책임투자 분류는 당사 기준에 의함 (ESG 펀드, ESG 목적채권, 친환경 펀드/대체투자 등)

03 수탁자 책임 원칙

1. 회사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수탁자 책임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2. 회사의 수탁자 책임 정책은 회사의 4大 투자철학인 가치 투자, 차별화된 운용, 팀 어프로치, 리스크 관리 등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객 자산의 중장기 안정적 초과 실현이라는 회사가 가진 궁극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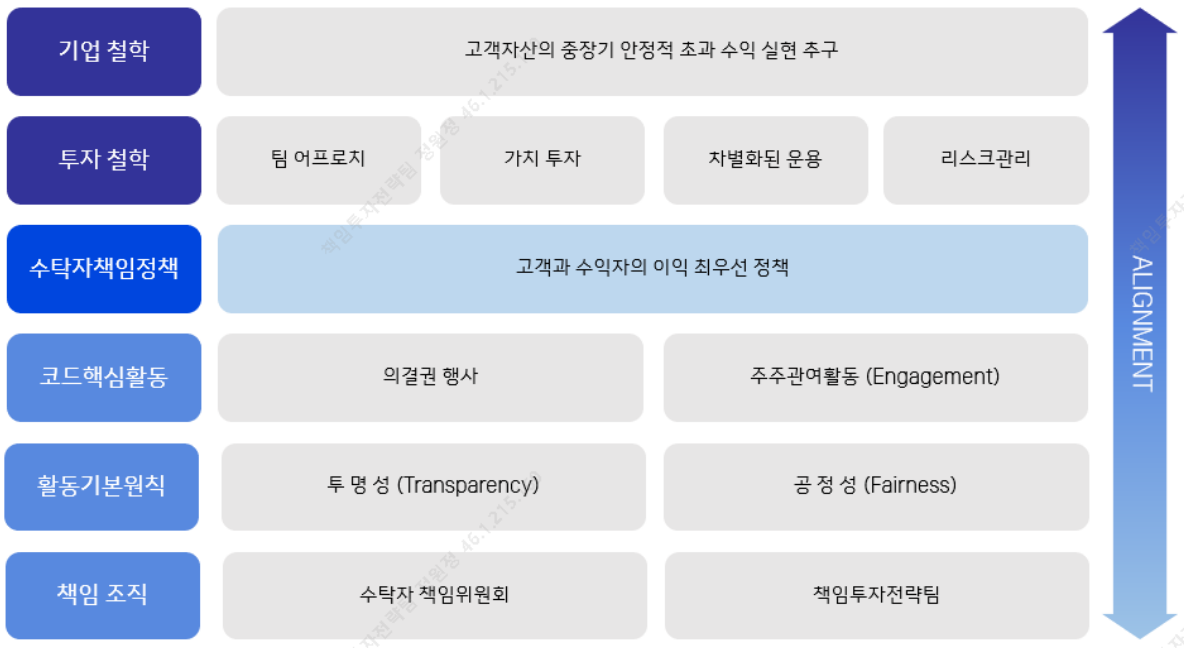
3.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성장이 장기투자 관점에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념 하에 투자회사의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4.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핵심활동으로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활동을 수행하며 이러한 활동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본원칙 하에 수행합니다

5.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되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6.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7.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담 실무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관련 정책의 수립, 이행 사항 관리 감독을 총괄하기 위해 별도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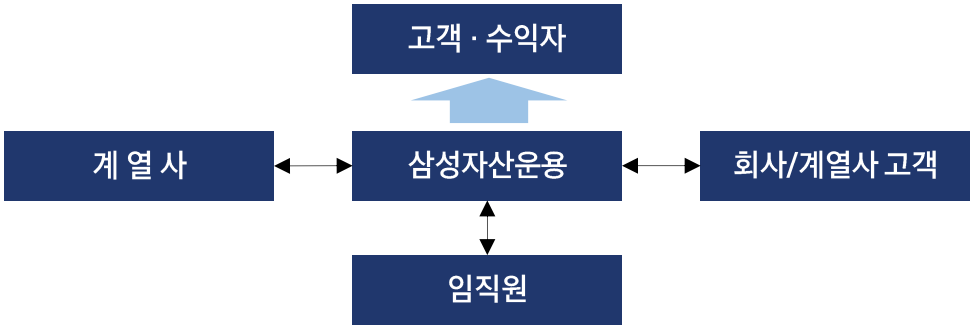
04 이해상충 방지 정책

삼성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본 정책은 당사가 2016년 12월 19일자로 공표되어 시행중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본 정책에서"수탁자책임"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이해상충 상황에 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원칙과 지침, 구체적인 방법, 권한과 의무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적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이슈를 최소화하고, 만일 발생시에는 이를 적극적 해소하기 위하여 同 정책을 운영합니다.

주요 이해상충



이해상충 방지

-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책임투자전략팀 등에 한해 공유하는 등 엄격한 Chinese wall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 계열사 등의 의결권 행사時 관련 법령 및 회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이해상충 방지
- 회사 및 계열사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 마케팅, 운용, 의결권 행사 조직간 업무 분리 및 주주활동 관련 정보 차단 等
- 임직원과 투자대상회사간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
  - 임직원 주식거래에 대한 제한 정책 엄격 운용, 이해관계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관련 업무 배제
- 기타 제반 내부통제제도를 엄격 운용 중이며 외부 의결권자문기관 활용도 이해상충방지에 기여

발생시 조치

이해상충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 발생 時에는 고객의 이익관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사내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세부 정책

이해상충 대응 원칙

삼성자산운용은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의 파악·평가·관리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적절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이해상충 발생의 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표적인 이해상충 상황에 대하여서는 각 유형별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투자대상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당사의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법 제9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2.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 대주주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3. 당사 임직원과 당사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대상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이해상충 대응 상세

1.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삼성자산운용의 주주 구성은 2018.6월 현재 삼성생명이 단독주주로서 당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삼성그룹(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 관련 제약이 존재하는 특수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해당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탁자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상기 자본시장법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당사는 대주주, 계열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세부 정책

2. 당사 또는 당사의 대주주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삼성자산운용은 금융투자회사이고 당사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회사로서 펀드, 연금, 투자일임,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상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회사 중에서도 당사 또는 당사의 대주주인 삼성생명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계를 지니고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수탁자책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 부서는 수탁자책임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당사는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를 통해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대주주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향후 그러한 거래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당사가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삼성자산운용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내부통제기준 등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에, 특정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당사의 수탁자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당사 임직원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일절 금지되기에 투자대상 회사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수탁자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투자대상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과 어떠한 사유로든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특수관계에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해상충 사실의 공개

만일 수탁자책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실제로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이를 고객 等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공개하고, 고객의 입장에 따라 또는 지시를 받아 최대한 조속히 이해상충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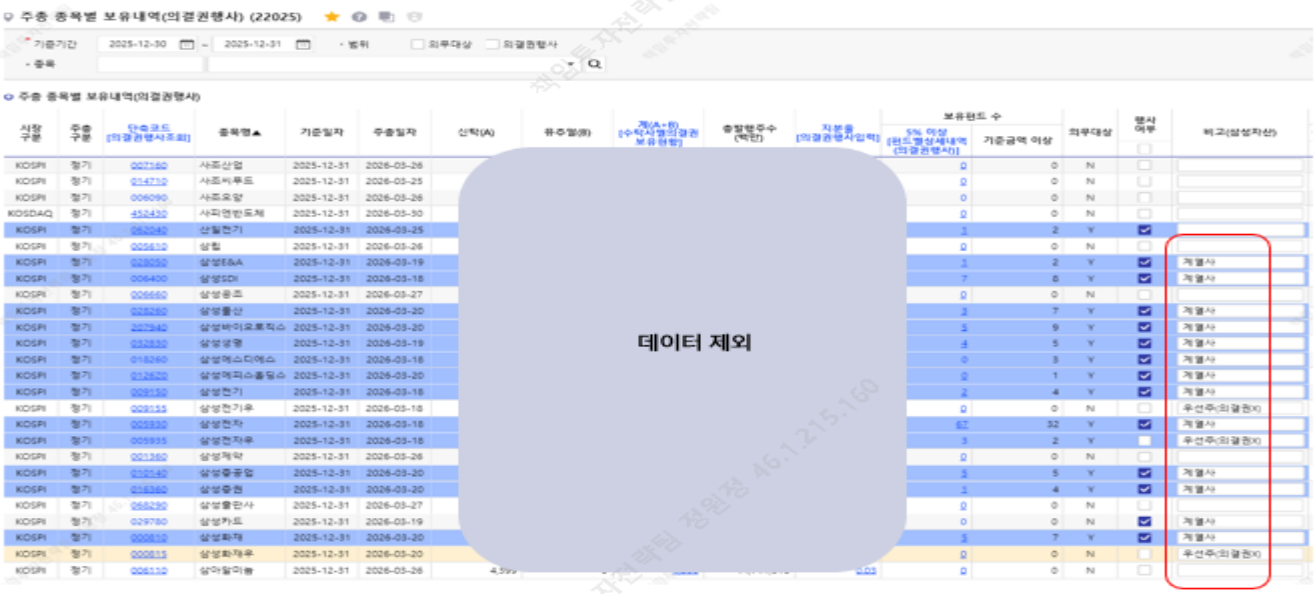
이해상충 유형별 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유 형 1 (개인)	• 매년 주식거래 금지 서약서 징구 (준법감시인 주관) •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서 분기별 임직원 주식거래 내용 점검 • 개별주식 매입 금지의 내부 규정 준수 확인
유형 2 (관계사)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업집단 현황 점검 (기업집단 포털) • 사내 전담부서(재경팀)의 특수관계인 현황 자료 사내 게시 사항 수시 점검 • 기타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관련 보도자료, 언론 등 상시 점검 • 주총 안건 검토시 '주주에 관한 사항' 점검 (계열사의 지분 취득 가능성 등 고려) • 당사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은 중립 또는 불행사하여 이해상충 원천 차단 * 상장 계열사 현황 : 삼성전자 等 18개사 증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 유예 (현재 2개사)
유형 3 (고객사)	• 마케팅 부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부서간 물리적/업무 분리로 이해상충 차단 노력 • 당사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사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 의사 결정 * 주요 금융지주사 및 대형 증권사

26년 관리 통계

	임직원 주식거래	계열사	거래관계(고객)	기 타
사 례	0	18	7	3
바 고	매분기 점검중 위반사례 없음	중립 투표	결의주체 상향 (전담팀장 → 수책위)	(계열)편입유예 2개사 (불행사) 前임직원 선임안건(불행사)

※ 사내 시스템 예시



05 투자기업에 대한 점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입체적·주기적 점검 체계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고객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ESG)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입체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 점검 체계는 시장의 돌발 변수에 즉각 대응하는 '상시 점검(Routine)'과 핵심 ESG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주기 점검(Periodic)'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운영되어 모니터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시 점검'은 예기치 못한 ESG 컨트로버시(Controversy)나 횡령·배임, 중대재해, 정보보안 사고 등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발생할 경우 작동합니다. 주식운용역(PM) 및 리서치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재무적 영향을 즉각적으로 진단하여 펀더멘털 훼손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와 병행되는 '주기 점검'은 당사의 탑-다운(Top-Down) 및 바텀-업(Bottom-Up) 리서치 역량을 결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수준, 이사회의 독립성, 그리고 '기업 밸류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을 선별합니다. 이후 대상 기업의 현황 진단부터 대응 계획 수립, 이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합니다.

이러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활동은 단순한 현황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검 결과, 기업가치 훼손 위험이나 ESG 퍼포먼스 부진이 식별될 경우, 당사는 이를 즉각적인 '주주관여활동(Engagement)'으로 연계합니다. 실무진 간의 질의서 송부부터 경영진과의 비공개 대면 면담, 나아가 의결권 행사 및 주주제안에 이르기까지 점검의 결과물을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점검 (Routine)

예기치 못한 ESG 컨트로버시 발생시 즉각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무적 영향을 진단하여 펀더멘탈 훼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 횡령, 배임, 정보보안 사고 등 지배구조/사회적 리스크
- 중대재해 등 산업 안전 사고 발생 현황 점검
- 전담조직 주관하 주식운용역, 리서치 부서 및 외부 기관 등과의 협업 분석

주기 점검(Periodic)

특정 산업 및 테마별로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심층 평가를 진행합니다.

- 밸류업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공시 현황 점검
- 거버넌스 : 이사회 독립성 및 합리적인 주주환원 정책
- 환경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수준

점검 결과에 따라 ESG 평가, 주주관여(Engagement),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종합적 연계

06 ESG 체계 및 프로세스

ESG 평가 체계

• 삼성자산운용은 투자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영업 활동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ESG 요인을 점검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E/S/G 세부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 배분하는 독자적인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 탄소배출량 관리 및 Net Zero 계획 • 에너지 사용량 및 관리 • 수자원 및 오폐수 관리 • 대기 오염 관리 • 폐기물 및 유독물질 관리 • 지역 사회에 대한 환경 영향력 • 전사적 환경 위험 관리 시스템	• 고객 정보 보호 시스템 • 데이터 보안 및 관리 정책 • 제품/서비스 품질 및 안전 • 임직원 근로 환경 • 임직원 다양성, 포함성 • 인권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 • 판매 관행 및 라벨링 정책	• 기업 소유구조 •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 보수(Pay) 체계 및 공시 제도 • 회계 및 세금 관련 분쟁 • 기업 윤리 규정 및 교육 • 불공정 경쟁 관련 규정 /교육 •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 당사는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되 맹목적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인 내부 리서치 역량을 결합하여 자체의 ' Samsung ESG 등급(7단계) ' 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평가 주체

책임투자전략팀에서 외부 데이터 및 독립 외부기관의 ESG등급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ESG 스코어 산출
- 최종적으로 In-house 리뷰를 통해 삼성 ESG등급 결정

평가 주기

연간 평가
- 반기(6월/12월) 점검을 통해 변동사항이 크거나 이슈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등급 변경 가능

평가 대상

A. 당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의 상장/비상장 기업
B. A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국내외 시장 인덱스(예: KOSPI200, MSCI AC World Index, KIS종합채권지수,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상장 기업

외부 등급 有 : 표준화된 ESG스코어 + 내부 리뷰로 등급 결정
외부 등급 無 : 동일기업집단, 섹터 내 Peer 분석 + 내부 리뷰로 등급 결정

비상장 기업

외부 등급 無 : 동일기업집단, 섹터 내 Peer 분석 + 내부 리뷰로 등급 결정
* 현재 국내외 ESG평가기관들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음

A+, A, B+, B, C+

C등급

반기 1회 모니터링 보고

D등급

투자 원칙적 배제
단 투자 불가피할 경우, 사유 등 유관 부서 사전 협의 절차 要

<주> (1) 1년內 2노치 이상 하락 업체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 (2) 관리 등급 미보유 업체 (신규상장 등) : 6개월내 등급 평정
(3) 非기업(국가, Supra, Agency, Muni 등)은 설립목적과 사업성, ESG정보 제약 고려했을 때 ESG등급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ESG 쟁점 여부에 따라 PASS, FAIL로 평가
i. 국가의 경우 UN제재국가, 파리기후협약 미가입 국가는 Fail, ii. Supra, Agency, Muni 등의 경우 설립목적 및 개별 프로젝트가 ESG 관점에서 쟁점 사항 있는지 점검 후 Pass/Fail 결정

07 주주활동 지침

기본 원칙

- 투자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무 요소와 비재무적 ESG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
-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관리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적극적 방식으로 Engagement(주주활동) 수행
- Engagement 목적은 투자기업과 적극적이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축하고 투자에 확신을 가지기 위함에 있음
- 경영 참여 또는 간섭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지양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함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목적 투자 제외)

대 상

주요 투자기업

- 보유지분 1% 이상 또는 1000억 이상의 주요 투자기업 중 주요 ESG 이슈 관련하여 ESG 퍼포먼스 부진 기업 선정
- 주요 ESG 이슈 및 테마는 Top-down 리서치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

ESG 하위 그룹

- 자체 내부 등급 기준 C 이하 기업 중 보유지분 0.5% 이상 또는 500억 이상 기업
- 개별기업에 대한 Bottom-up 리서치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ESG 이슈 및 테마 선정

절 차

- 최초 Engagement은 일반적으로 전화, 이메일, 서면 형태로 시작하며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 기업 내부인사와 면담 병행
- 최초 Engagement 이후 일정 기간 소요에도 불구하고(통상 1년) 관련 이슈의 개선이 없거나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Engagement 실행
- 추가 Engagement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공개서한, 주주제안을 고려할 수 있음.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투자 배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의 ESG 활동을 개선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함
- 추가 Engagement로 인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선별적으로 수행함

주주활동 프로세스 운영 체계

대상 선정 및 관여 실행

당사의 주주활동(Engagement)은 획일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개별 이슈의 중대성과 기업의 펀더멘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Top-Down(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 접근법을 병행하여 최적화된 관여 절차를 실행합니다.

가. Top-Down Approach (거시적 리스크 및 주요 테마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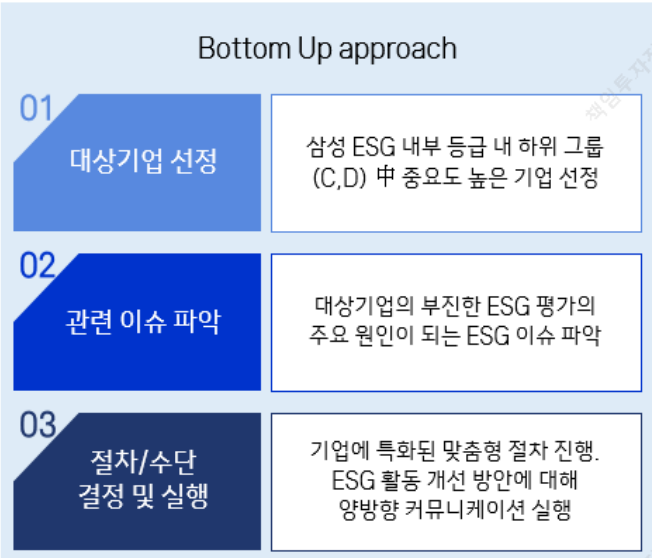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중대한 ESG 트렌드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내 파급력이 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 주요 이슈 선정: 당사의 ESG 주요 이슈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시장 내 중대한 E/S/G 이슈 및 테마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대상기업 선정: 당사의 주요 투자 대상(보유지분 1%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 중 해당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ESG 퍼포먼스가 부진한 기업을 타겟팅합니다.
- 관여 실행: 전화, 서면,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대상기업의 내부 인사와 대화를 진행하며, 산업 내 최우수 관행(Best Practice)의 신속한 도입을 독려합니다.

나. Bottom-Up Approach (개별 기업 펀더멘털 중심)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 저하 원인을 분석하여 핀셋형(맞춤형) 개선을 유도합니다.

- 대상기업 선정: 당사의 자체 ESG 내부 등급 평가 결과, 하위 그룹(C, D 등급 등)에 속한 기업 중 포트폴리오 내 중요도가 높은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관련 이슈 파악: 선정된 대상기업이 부진한 ESG 평가를 받게 된 근본적이고 주요한 원인(Key ESG Issues)을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 관여 실행: 획일적 요구가 아닌 해당 기업의 상황에 특화된 맞춤형 절차를 진행하며, 단순 지적을 넘어 ESG 활동 개선 방안에 대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주주활동 프로세스 운영 체계

사후 모니터링 및 추가 액션 (Escalation)

당사의 주주활동은 일회성 행동(Event)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과정(Ongoing Process)으로 운영됩니다. 1단계 관여 실행 이후 대상기업의 피드백을 점검하고, 실제 변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강도를 높인 추가 액션(Escalation)을 수행합니다.

【 단계별 모니터링 및 추가 액션 프로세스 】

모든 관여 활동은 1차적인 ' 비공개(Private) 대화 (전화, 이메일, 서면, 면담 등) ' 로 시작되며, 대상기업의 수용 태도에 따라 관리 트랙이 분리됩니다.

• 성공적 개선 시 (Monitoring List 편입)

비공개 대화 후 회사가 긍정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거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기업을 'Monitoring list (개선 추이 대상)'에 추가하여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프로세스 종료: 이후 해당 기업의 ESG 성과가 동종 업계(Peer 그룹)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는 등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면 Monitoring list에서 최종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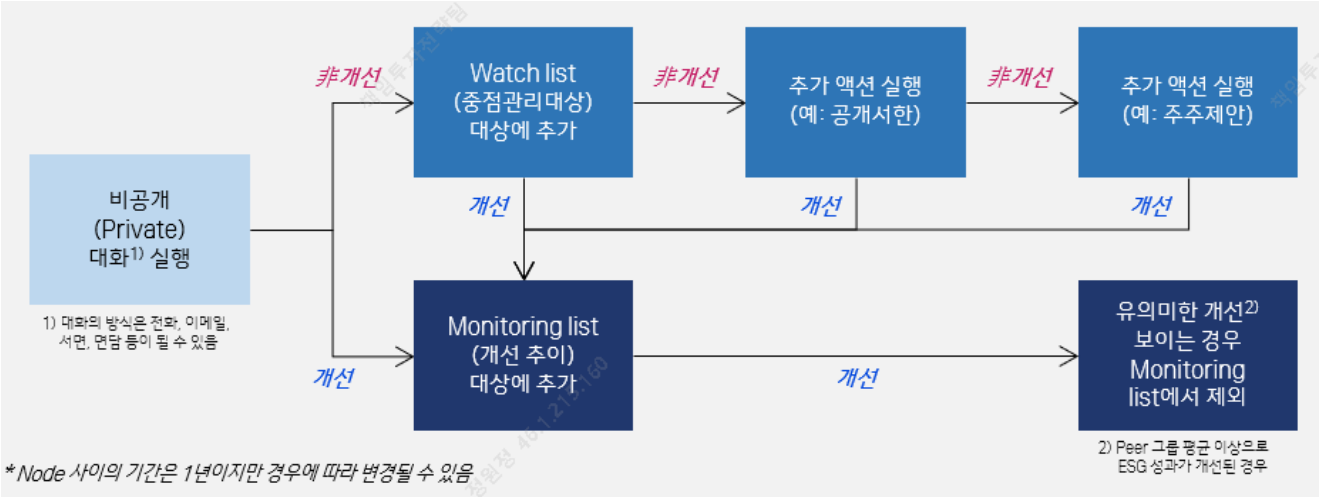
• 비(非)개선 시 (추가 액션/Escalation 수행)

Watch list 편입: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거나 불응할 경우, 해당 기업을 'Watch list (중점관리대상)'로 격하하여 감시 강도를 높입니다.

1차 추가 액션 (공개 전환): Watch list 편입 이후에도 비개선 상태가 지속되면, 비공개 대화를 중단하고 이사회 앞 '공개 서한 발송' 등 외부 압력을 가중하는 1차 추가 액션을 실행합니다.

2차 추가 액션 (적극적 주주행동): 공개 서한 이후에도 회사의 변화 또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시 이사회 선임 안건에 반대 표결 및 경우에 따라서 '주주제안' 등 추가 액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단, Watch list 및 추가 액션 단계 중 언제라도 대상기업이 수용적 태도로 전환하여 개선을 이룬다면 즉시 Monitoring list 단계로 복귀할수 있습니다.)



주주관여 활동

지침 및 프로세스 기반의 관여활동 이행

삼성자산운용은 앞서 기술된 주주활동 지침 및 점검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목표로 성실하게 주주관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op-Down 및 Bottom-Up 리서치로 파악된 핵심 ESG 이슈를 바탕으로 기업 및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차 이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 우선 원칙

관여활동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방어적 태도를 최소화하고, 공개적인 압박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 등 주주가치 훼손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대면 미팅 및 컨퍼런스 콜 중심의 소통

특히 당사는 서신 등의 공식적인 활동보다는 대면 미팅 및 컨퍼런스콜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는 경영진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교환하고, 문서로는 전달하기 힘든 세밀한 맥락까지 공유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여활동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관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공식적인 이력(Record)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서신 형태의 주주관여활동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비공개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관여의 강도를 높이는(Escalation) 체계적인 프로세스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활동 통계

	컨퍼런스/유선		면 담		서 신		계	
	'25년	'26년	'25년	'26년	'25년	'26년	'25년	'26년
기업가치	2	4	8	9	-	7	10	20
거버넌스	3	2	9	7	-	-	12	9
환경이슈	-	-	3	-	-	-	3	-
산업안전	1	-	3	1	-	-	4	1
계	6	6	23	17	-	7	29	30

※ 활동중 다수의 주제를 동시에 다룬 경우 핵심 주제로 집계

주주관여 활동 사례

기업	구분	활동 요약	방식	기업 반응(조치)
A기업	G	• 자회사의 상장추진과 관련하여 당사 및 시장의 우려(중복상장 이슈, 주주보호절차 등)를 전달 • 경영진 보수와 관련하여 투명한 보수산정 기준 공시의 필요성	면담 ('26)	• 시장 우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음 → 이후 상장 철회 결정 • 법 규정 개정 등에 부합하도록 공시할 계획임을 밝힘
B 기업	G	• 최고경영진 선임 절차에 대한 설명 요청 (후보 추천, 선발 과정 등) • 이사회내 소비자보호 전문가 부재에 대한 우려 전달	면담 ('26)	• 후보추천위원장(사외이사)가 후보추천 및 선임 등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 설명 실시 • 금년 주주총회에서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 조치함
C 기업	S	• 정보보안사고 발생 경위, 조치 및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해 질의 • 향후 정보보안 투자 계획, 관리체계 개선 및 재발대책에 대한 설명 요구	면담 ('25)	• 경위 및 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현 상황에 대한 설명 • 당국 조사 완료후 보안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예정 (재발방지, 보안투자 등을 포함)
D 기업	E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목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여부 점검	면담 ('25)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60%까지 확대하는 목표 수립
E 기업	기업가치	• 기업가치 제고계획 최초 공시 후 추가 F/up 공시 부재로 이행현황 등에 점검 애로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시장과 정기적 소통 프로세스 구축 요청	서면 ('26)	• 공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당사의 요청 일정 내에 이행현황 공시 조치함 • 향후 시장이 예측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공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답신 보내옴

08 의결권 행사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최선 이익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의 핵심인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행 절차와 이해상충 통제 기준을 담은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관행(Best Practice)과 당사의 투자 철학을 결합하여 고도화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의 면밀한 승인을 거쳐 상시 공개 및 업데이트되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기업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사 방향	•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고객,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극대화 지향 -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성장이 장기투자 관점에서 고객,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념하에 행사 - 투자대상회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환경, 사회, 경제 等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행사
행사 원칙	• 법과 원칙의 준수 •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장기투자 관점의 의결권 행사 원칙 - 주주간 공정성 강화 / 이해상충 방지 /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등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이사회, 경영진의 장기 성장 전략을 지지하며, 단기차익 목적의 안건에는 원칙적 반대 • 회사내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장기 투자 철학에 기반하여 집합투자간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결권 행사 •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 추구 - 필요시 외부 의결권자문기관 활용, 단 최종결정은 회사 책임하에 의결권 행사
행사 범위	•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범위 점진적 확대 - 회사가 보유 중인 모든 국내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함 * 단 보유비중이 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의 경우 의결권 행사 예외 적용 가능 - 개별 집합투자자산 5%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종목의 경우 전건 의무 행사(법적공시기준) * 해외주식 및 타 자산군의 경우는 추후 확대 검토 예정
행사 주체	• 스튜어드십 전담 조직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문성 및 일관성 등을 고려) - 주요 안건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결로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행사 공개	• 법정 공시 및 웹 사이트를 통한 공시를 통해 투명성 제고 - 법정 공시 외에 최소 연 1회 웹사이트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을 고려, 의결권 행사내용은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

자료 수집 및 행사여부 결정

- 주총 공고 확인, 다양한 채널(언론, 과거 행사 이력 등)을 통해 관련 자료 수집
- 적극적 행사의 기조 아래 모든 건에 대한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총 일정 중복, 인적자원 등 제한된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 우선 순위화
  * 지분율 및 투자액 Matrix화, 안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행사여부 최종 결정

내부 검토 및 자문사 의견 참고

- 의결권 행사 가이드 라인에 의거하여 내부 의안 검토 실시
- 필요 시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 의견을 참고자료로 활용
  * ESG기준원, 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아주경영연구소 (주요안건은 중복하여 검토)

내부의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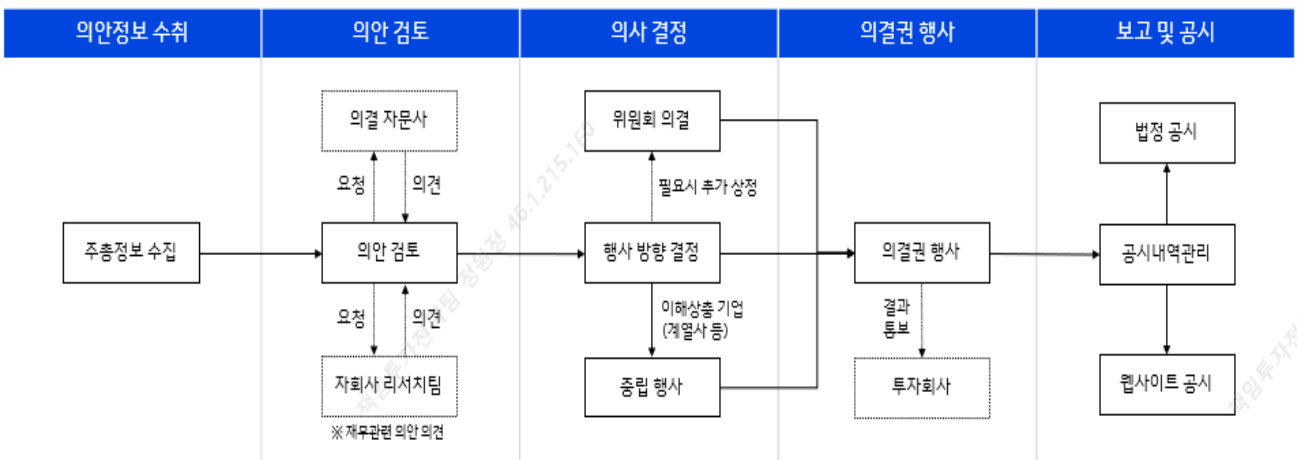
- 운용역 의견 수렴
- 책임투자전략팀장 최종 결재 (중요 안건의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 상정)

수탁자 책임위원회 심의

- 주총 안건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상정 후 최종 심의 및 의결

의결권 행사 및 공시

- 안건 별 찬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또는 서면 행사)
- 당사 웹사이트 및 법정 공시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의결권 자문기관

삼성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제안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복수의 자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취하여 분석의 편향성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총 시즌 외에도 연중 상시로 자문사와 소통하며, 당사의 책임투자 철학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들의 논리를 철저히 교차 검증(Cross-check)합니다. 이러한 외부 자문은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는 당사 전담조직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최근 도입된 자문기관의 인력 및 시스템 역량 등을 평가하는 자체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향후 더욱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의사결정 체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활용 의결권 자문사 현황 :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아주기업경영연구소 】

대여 주식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대여 수수료가 펀드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추적오차를 방어함으로써 수익자의 장기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 대여 주식을 회수(Recall)할 경우 필연적으로 해당 기간의 확정 수익 소멸이 수반되므로, 당사는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라는 수탁자 본연의 의무에 입각하여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고려합니다. 즉, 의결권 행사가 가져올 거버넌스 개선의 정성적 효익과 대여 유지를 통해 확보되는 정량적 금융 이익을 철저히 비교 형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의결권 영향력이 제한적(대여주식 기준 1% 이하)이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일반 안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펀드 자산의 운용 효율성과 실질적인 수익자 가치 보호를 위해 주식대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합리적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위임

당사는 외부 기관(연기금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사 고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찬성/반대)을 적용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금을 위탁한 외부 기관이 자사만의 고유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정하고 이에 따른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당 수익자의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처럼 수익자(의결권 위임기관)의 고유 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와 동일한 기업의 동일 안건에 대해 서로 다른 찬반 의견(Cross-Voting)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각 펀드 수익자의 최선 이익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의결권 주요 안건

• 의결권 행사시 주요 고려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이사회 구성	• 회사 또는 주주가치 훼손(중대성 판단) 이력 등 • 이사회 활동 미흡 (해당 기업 또는 최근 이사 역임 기업의 출석률 등 점검) • 과도한 겸임 (겸임 회사의 규모, 상장 여부, 직책 등 고려하여 판단) • 이사회 구성의 편중 (이사회내 오너 일가 비중 과다)
감사 기구	•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가능성 •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 • 상근감사의 겸직 여부
정 관	• 주주권 희석 우려 안건 (3자 배정 전환사채 등 발행 한도, 약 20% 이상 희석 시 반대) • 주주권리 또는 이사회 기능 약화 우려 (의결권 행사 방식 제한, 이사회 소집 , 재무제표 등)
보수 체계	• 이사 보수 한도 유지 안건은 일반적으로 찬성 기조 유지하되 증액 안건 상정시 실적 개선 여부, 실지급율, 대상 인력 등을 점검하여 찬반 결정 • 상근감사 보수의 경우 과소(5천만 미만) 또는 과도(5억 초과)하여 적절한 감사 기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반대 원칙 적용 • 과도한 퇴직보상제도 운영
재무제표・배당	• 외부감사 적정 안건에 찬성 원칙 적용 • 개별기준 순이익의 10% 미만을 배당하는 기업은 반대 원칙 (유보 자금 규모, 투자계획, 산업 등에 따라 일부 차별 적용, 점진적 기준 강화 예정)

• 26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정관 변경 안건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등

구분	주요 내용
이사/감사위원	• 이사의 임기 조정 • 이사수의 변경 •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 이사의 명칭 변경, 독립이사 구성비율 상향
주주총회	• 집중투표제 배제 조문 삭제 • 전자주총 의무화 도입 관련 정관 (일부 중소형사는 도입 배제 취지의 안건 상정)
자사주	• 정관 내 자사주 보유 처분 조항 신설 • 자사주 보유, 처분에 대한 계획 승인

주요 안건 사례 ('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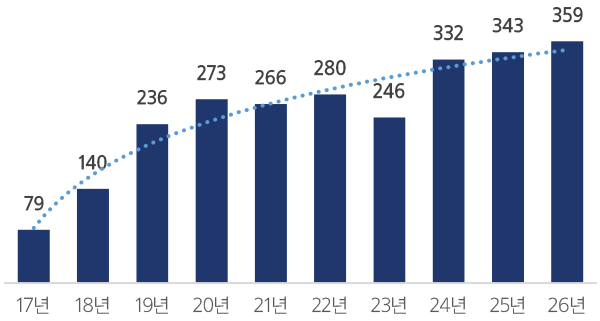
기업	안건	사유
A기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 선임	후보자의 경우 동사의 전년 회계법인인 XX회계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인사로, 선임시 사외이사로서 ㅇㅇㅇㅇ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시·견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후보자 선임 안건에 반대함
B기업	사내이사 000 선임	AAA는 사내이사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는 없으나 대주주인 BBB 대표이사의 자녀로, 기존 이사회에 배우자(CCC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만일 후보자가 선임될 경우 이사회가 가족 관계인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는 점을 우려하여 동 안건에 반대함
C기업	사내이사 XXX 선임	사내이사 후보자 AAA은 직전임기 이사회 참석률은 60%로 저조하였으며, 사내이사로 재임한 23년 3월부터 25년까지 개최된 6회의 이사회에 3회나 불참한 점 감안시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며, 이사회 보고 사항 등을 검토·논의하는 것은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해야 할 이사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는 점 감안시 이사로서 충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함
D기업	재무제표 승인	외부회계법인(XX)의 감사 의견이 적정임.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배당여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안건에 반대함
E기업	정관 변경의 건	동 안건은 다수의 정관 변경의 일괄 상정 안건으로, 정관 변경 중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의 경우, 이사의 책임 감면에 대하여 결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이사의 책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권리의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안건에 반대함
E기업	정관 변경의 건	정관 변경 안건 중 X호 안건의 경우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9명 이내 → 3명 이상 7명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이사 정원 축소로 일반주주의 이사추천권을 제약될 수 있는 점,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집중투표제 취지를 일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에 반대함
F기업	이사 보수한도	F 기업은 이사보수한도를 전년비 100% 증액한 XXX억으로 상정함. 실 지급액(RSU XX억 포함), 주주환원 개선 등 감안시 증액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회사의 이익규모(***억)와 경영 실적(순익 ***억 감소) 등 감안시 증액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안건에 반대함

의결권 행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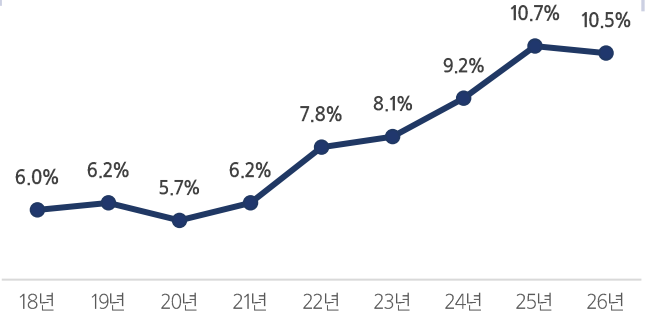
당사는 '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극적 의결권 행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26년)의 경우 역대 최다인 359개사(정기주총 기준)의 3,342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반대율은 전년비 소폭 하락한 10.5%를 기록하였습니다.

행사기업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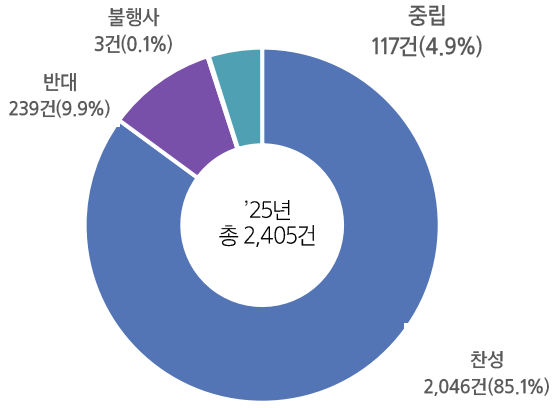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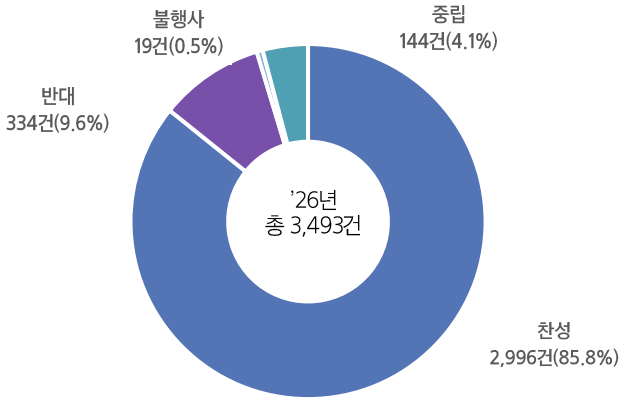
안건 반대율 추이



*정기주총 기준 (반대율은 계열사 중립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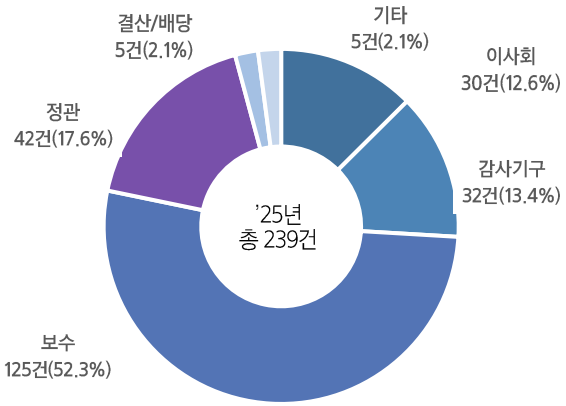
의결권 행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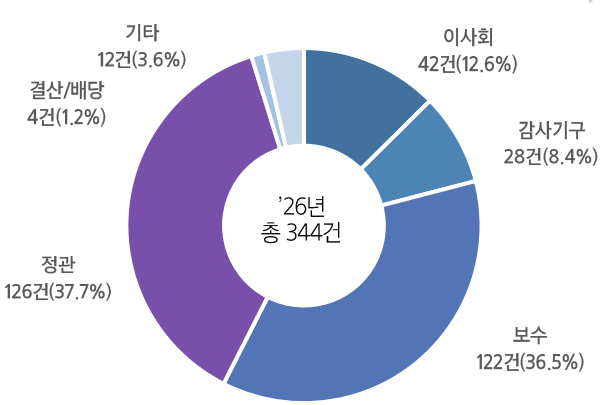




* 공시 기준(전년 4월 ~당년 3월말, 임시주총 포함)

반대율 현황





* 공시 기준(전년 4월 ~당년 3월말, 임시주총 포함)

09 전문인력 역량 강화

•수탁자책임 이행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삼성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전담 조직인 책임투자전략팀과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리서치 및 판단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및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 그룹과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복잡한 지배구조 이슈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주요 세미나와 학계·산업계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관계자들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최신 ESG 트렌드와 규제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제	참석자	비고
25.2월,4월	스튜어드십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팀장 등 2인	ESG기준원
25.3월	충실의무 상법 개정 의미 세미나	팀장 등 2인	거버넌스포럼
25.5~6월	정기주총 Review 세미나	팀장 등 3인	의결권 자문사 3사
25.5월	밸류업 프로그램의 평가와 추진방향	팀장 등 2인	자본연, 거래소
25.6월~7월	상법 개정 관련 외부기관 컨퍼런스	팀장 등 3인	세종
25.9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	팀원	국회
25.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가치제고 방안	팀장	거버넌스포럼

나아가, 이러한 책임투자 활동이 조직 전반의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성과를 임직원 평가 체계에 엄격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활동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이행과 관련한 정량・정성적 요소를 담당 조직 및 구성원의 KPI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임감과 업무 전문성을 강도 높게 제고하고 있습니다.

- 임원(경영혁신담당) 평가 반영 : 산하 조직인 책임투자전략팀의 활동 내역 등을 평가 (의결권 행사, 주주관여 활동 및 이행평가 결과 등 정성・정량적 요소 반영)
- 부서장(팀장) 및 팀원 (개인고과 반영)
  - 정량 평가 항목 : 의결권 행사 건수, 위임 의결권 수임률, 주주관여활동 건수 등
  - 정성 평가 항목 : 외부기관 의결권 점검 결과,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 결과 등

이처럼 엄격한 성과 평가에 기반한 자체 역량의 내재화와 외부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성공적인 주주관여활동을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CS센터 : 1533-0300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